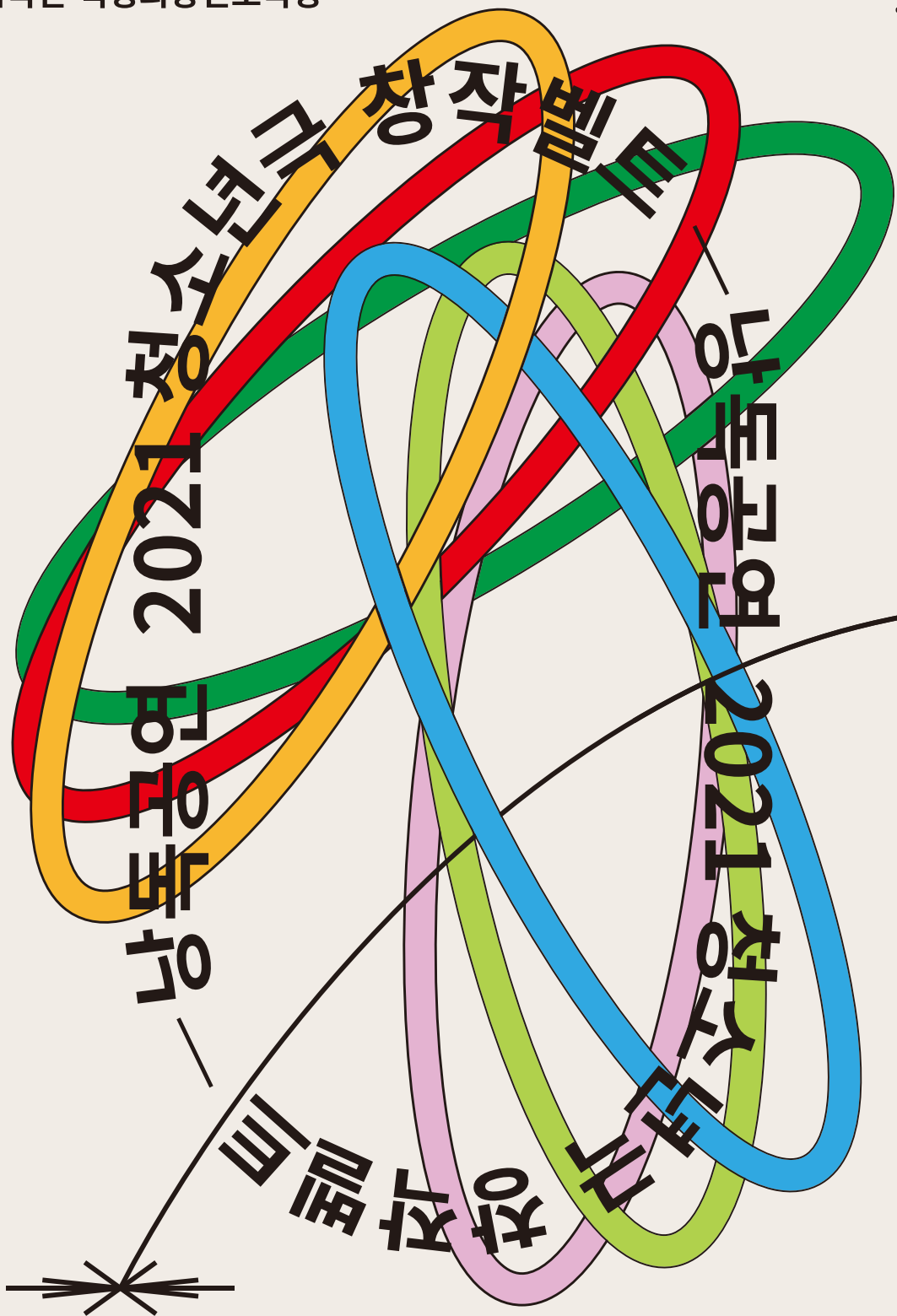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2021.11.26.—11.28.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노랑의 보색은 검정이다
최현비 작 X 창작집단 LAS 신명민 연출

소년 대로
고정민 작 X 비밀기지 신진호 연출

불장난
이예진 작 X 극단 파블라토르 권영호 연출

2021 청소년극 창작벨트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 희곡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해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통해 다양한 소재와 양식을 담은 총 스무 편의 창작희곡을 개발하여, 낭독공연과 희곡집으로 선보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청소년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 작업을 기반으로 창작 환경을 위해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에서 ‘청소년극 창작벨트’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청소년과의 협력 작업을 통한 청소년극 희곡 개발이라는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함께 낭독공연을 이끌어갈 참여극단을 별도 모집하여 내외부적으로 청소년극 창작 자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청소년극 공연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극 창작벨트>를 통해 개발된 작품들이 추후 더 많은 청소년 관객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일정

7월-8월	작가공모
9월	참여극단공모
10월-11월	청소년 워크숍, 공연연습
11월	낭독공연

2012년	<개천의 용간지> 한현주 작, 남인우 연출 <안녕> 추민주 작/연출 <무한리필배송서비스-더 박스(The BBOX)> 양혜정 작, 유홍영 연출
2013년	<옆에 서다> 박찬규 작, 김수희 연출 <질풍노도의 역사> 오세혁 작/연출 <북치기 박치기> 류연웅·태기수 작, 이강선 연출
2014년	<토끼굴> 정민지 작, 김한내 연출 <19호실> 이성권 작, 김수희 연출 <편의점> 김준호 작, 윤성호 연출
2015년	<아가미> 이라 작, 윤한솔 연출 <날아가 버린 새> 장지혜 작, 전인철 연출 <고등어> 배소현 작, 이래은 연출
2016년	<아는 사이> 황나영 작, 김미란 연출 <열다섯> 신해연 작, 이기쁨 연출
2017년	<사물함> 김지현 작, 구자혜 연출 <봉천동 카우보이> 김희진 작, 여신동 연출 <장난감 병동> 이상훈 작, 박지혜 연출
2018년	<여름방학> 김태형 작, 김한내 연출 <G의 영역> 장영 작, 이연주 연출 <병목안> 허선혜 작, 김미란 연출
2019년	<무중력 연애> 김윤영 작, 윤혜숙 연출 <맥거핀> 김준호 작, 설유진 연출 <초록빛 목소리> 안정민 작, 이래은 연출
2020년	<병아리를 갈아 만든 피카츄 돈까스> 배해를 작, 윤성호 연출 <그렇게 남아있는 앓고 가느다란> 홍기황 작, 송정안 연출 <견고딕-걸> 박지선 작, 신재훈 연출

노랑의 보색은 검정이다

2021.11.26. 17:00 | 11.28. 17:00

작품소개

상자 안의 병아리가 박아린의 방으로 빨려 들어가고, 노랑이 박아린의 방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시 박아린이 노랑의 방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
빨려 들어간 서로의 방안에서 상상 속 초록색 바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엔, 방문을 열게 되는 이야기. 방문을 열고 나가 만난 진짜 초록색 바다에서 춤을 추게 되는 이야기.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학교폭력으로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된 18세의 박아린과 가정폭력으로 방안에서 나올 수 없게 된 8세의 노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가해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박아린과 노랑의 입을 통해 재연될 뿐이며, 그 재연은 그들이 서로에게 받는 상처로 인해 다시 재구성되기도 하고, 기억(되려)하기도 합니다. 둘을 만날 수 있게 한 병아리의 존재는 당연하게도 허구입니다. 그러나 그 허구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서운 현실을 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지는 꿈. 거친 방수 페인트로 칠해진 초록색 옥상의 바닥을 바라보며 진짜 초록색 바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해석과 설명을 바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짜 초록색 바다를 믿을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가 — 최현비

이 세계에서 다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다치고 난 이후의 미미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쓴다. 제16회 대산대학문학상에 <속죄양, 유다>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요즈음엔 연출도 하고 있다.

연출의 글

돌아보면 굉장히 어둡고 무채색이었던 청소년기였다. 내가 갖고 있는 색은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색들이 한데 뒤엉켜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해 날 채웠던 것 같다. 어떤 색을 꺼내보려 다가가도 주변에 의해 지워지고 또 묻혔던 시기. 어느 순간에는 나 스스로도 그 무채색이 익숙해져 내 색을, 빛을 찾는 걸 포기했었다.

혹시나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보색이 되어주고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색들을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이 연극이 그런 색이었으면 한다.

참여극단 — 창작집단 LAS

창작집단 LAS는 즐겁게 공연을 하기 위해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집단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감각적인 표현력으로 무대화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연극, 문학, 무용, 음악, 미술, 영상 등 어느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는 한층 진보된 무대 언어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도가 관객들에게 생소하고 일방적인 소통방식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이성적, 감성적으로, 공감으로, 신선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연출 — 신명민

사회 속 다양한 시선을 다루고자 하는 연출가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2019 한국극예술학회 올해 작품상 연극부분
<한성의 이발사><우리별><혼마라비해?><레라미 프로젝트><미래의 여름><철가방 추적작전><낮선 이> 외

불장난

2021.11.27. 17:00 | 11.28. 14:00

작품소개

아빠에게 매일 뒷산에서 맞는 상옥, 억울한 나머지 뒷산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불을 지른 건 그 옆에 따라온 친구 동주다. 상옥은 아빠에게 혼이 날까 무서워 결국 도망가고, 동주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며 더 큰 불을 지르겠다는 생각으로 홀로 산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린다. 늘 전쟁이 벌어지는 집안에서 가족이 모두 떠나버릴까 두려운 수지, 돌아오지 않는 동생 동주를 찾기 위해 상옥과 함께 산을 오르고 오른다. 산속에서는 총소리가 무성하게 들리고 곳곳에는 이미 죽어버린 멧돼지 사체들이 가득하다. 이때 사냥꾼을 피해 도망치고 있던 멧돼지들이 이들 눈앞에 나타난다.

작가의 말

<불장난>에는 각자만의 이유로 언제나 가만히 있기만을,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만을 강요받은 청소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속의 작은 불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씨를 내뿜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마음껏 몸부림치는 과정을, 서로가 함께함으로써 그 불씨들이 따뜻한 온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곁에 있어 줬던 친구들 덕분에 청소년기를 아슬아슬하게, 또 무사히 넘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 희곡이 누군가에게 조금은 더 자신의 모양대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친구 같은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가 — 이예진

나는 왜 나로 살지 못하는가? ‘나’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을 고민하고 그 인물들이 마주칠 세상의 틀들을 깨기 위한 작품을 써나간다. 발표한 작품으로 <젓가락행진곡>, <질주> 등이 있다.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꾼이 되고자 작가 이외에도 배우, 거리예술, 1인 창작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도전하고 있다.

연출의 글

어린 시절 뚝방에서 친구들과 불장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캠핑장에서 불멍을 합니다. 장작을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 어느새 밤이 깊고 장작은 떨어집니다. 자러 갈 시간입니다. 나는 왜 불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걸까요? 아마도... 불이 살아 있어서 일까요? 불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매 순간 모습을 달리하며 타고릅니다. 저는 <불장난> 속의 등장인물들이 불처럼 살아있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지, 동주, 상옥이 따뜻한 불처럼 온기를 가지고 살아있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참여극단 — 극단 파블라토르

파블라토르는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이야기 속에 다양한 인간의 삶을 담아낸다. 열정, 의지, 사랑, 질투, 분노... 이야기가 그려낸 인간의 모습은 우리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를 이끌고 때론 우리를 구해내기도 한다. 세상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나누자는 의미를 담아 극단의 이름을 지었다.

연출 — 권영호

극단 파블라토르의 움직임 감독이자 연출가. 배우로 연극 활동을 시작해서 무용수, 안무가, 움직임 감독을 거쳐 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은 살아있는 몸들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다른 몸들을 만나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적이다.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오릿세우스><하프라인> 외

소년 대로

2021.11.26. 20:00 | 11.27. 14:00

작품소개

이 극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선 퇴소 보호종결아동, 가출 청소년들의 아픔과 홀로서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망망대해 같은 큰 대로에 서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작정 거리를 떠도는 이 작품 속 아이들은 어느 날, 조난당한 길고양이 포우의 신변 처리를 두고 서로 간 생각이 갈리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행복을 잠시 미루거나 하고 싶은 건 참아야 한다는 의견과, 보다 확실한 지금 여기의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길고양이 포우와 함께 공존하고 싶다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세상과 곧바로 조우하고 자립해야만 하는 커다란 숙제를 떠안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슨 질문을 남기게 될까요.

작가의 말

어느덧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 이 거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는 이름도 자신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도 각자가 조금은 서로 다른 이들의 모든 시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작가 — 고정민

제13회 대산대학문학상 <초상, 화>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울구>, <핏대>, <환상회향> 등의 희곡을 쓰고 있는, 극단 헤람의 구성원이다.

연출의 글

가출패밀리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데 <소년 대로>의 인물들은 아예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내는 일, 살아가야만 하는 일로 엮여져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찬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대로>는 청소년극의 성장에 다루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년 대로>의 나오는 인물들은 각자가 현재의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극을 창작하는데 의미가 있는지 않을까요.

참여극단 — 비밀기지

‘비밀기지’에서 ‘비밀’과 ‘기지’를 풀이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활동이라는 의미의 ‘비밀’ 활동의 거점이 되는 장소 ‘기지’라는 뜻입니다. ‘비밀기지’는 저희만의 공간에서 연극을 탐험하고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젊은 연극 단체입니다.

연출 — 신진호

연극과 예술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 사회의 경계, 사회 모순적인 사건, 사회 시스템, 청소년 문제 등을 구성조건으로 하여 깊이 고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출 <카르타고><동네3-문명의요구><햄릿연습><종이인간> 각색/연출 <한한밤><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낭떠러지의 착각>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리서치, 워크숍 등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공연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제작 여건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을 문화 주체로 인지하고 ‘청소년 17인’, ‘협력학교’ 등을 통해 이들과의 적극적인 만남과 실질적인 소통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청소년극 레퍼토리로는 <소년이그랬다>, <비행소년 KW4839>, <룩산느를 위한 발라드>, <타조 소년들>, <오렌지 북극곰>, <죽고 싶지 않아>, <영지>, <발가락 육상천재> 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예술가탐색전’, ‘청소년극 창작벨트’, ‘영유아극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프로듀서·국제교류
김미선

연구개발
손준형 정한솔

공연제작·사업기획
박성연

국립극단 무대기술팀

기술감독
신승호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장도희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최윤영

마케팅
김태은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송이

청년인턴
노소연

티켓
김보배

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임지은 송솔 황지수
김지수 박주는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김민경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이지은

청소년극 창작벨트 STAFF

무대감독
최정환

조명디자인
손민영

음향디자인
안세운

공간디자인
이은석

무대팀
김대호 김승현 김진성
오주현 우지수 윤호

조명팀
고승우 김재은 신경배
이건혁 이한다 임혜성
장재영 전다록 정채림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예술교육
박진선 송재영 이향은

기록
이혜성

홍보물디자인
파이카

사진촬영
장성용(그린비)

영상촬영
이영관(오슬로 프로젝트)

예술가와의 대화 사회진행
손서희 박진선

제작총괄
김성제

예술교육기획
손준형 정한솔

프로듀서
박성연

제작진행
김민주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